

강원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초기-전기문화의 편년

金 權 中
중부고고학연구소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2. 단계설정 |
| II. 연구사 | IV. 편년과 절대연대 |
| III. 단계설정 | V. 변천양상 |
| 1. 주거지와 유물의 검토 | VI. 맺음말 |

I. 머리말

그간 청동기시대 연구의 주된 흐름 중 하나는 편년이었다. 편년을 통해 획기와 분기를 설정하고 그 내용을 감지하여 변화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치한 편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초기의 인식과 함께 전기와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초기의 설정과 변천 양상, 지역성, 계보 등의 실마리를 풀려는 노력이 많았고, 다양한 견해를 내놓게 되었지만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부분들이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게 되어 과거의 견해를 수정하는 작업도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강원 영서지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남강유역과 함께 증폭된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편년틀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조기가 설정(안재호 2000)된 이래로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金壯錫 2008)도 있었지만 금번 발표주제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조기를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각 기의 분기도 중요하지만 우선 초기와 전기의 획기를 어떠한 기준으로 또는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간 초기의 문제에 있어서 돌대문토기 자체의 편년도 문제이지만 흐름이 단절적이거나 돌출적인 타 문양요소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전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반과 후반의 구분이 매우 모호하고 쉽사리 획기가 되지 않아 묘제와 출토유물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지만(배진성 2011)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강원 영서지역 청동기문화는 시기별·지역별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각각의 유구·유물복합체 차이가 집단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주거지의 구조를 비롯하여 토기와 석기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단계를 설정하고 조기와 전기의 획기는 물론 각각의 분기를 구해보고자 한다. 다만 조기와 전기가 갖는 의미의 파악은 차치하고라도 편년들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그 변천과정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그 동안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적된 자료를 추가하여 기존의 편년관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재검토하고자 한다.

II. 연구사

조기와 전기에 대한 편년은 주로 조기에 집중되거나 조기와 전기 사이의 획기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조기에 대한 논의는 안재호(2000)에 의해 돌대문토기의 조기설정론이 주창되면서 김재윤(2004), 천선행(2005), 배진성(2007) 등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심화되어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으나,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반론이 제기(김장석 2008)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동시기 타 문화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돌대문토기에 집중하여 동시기의 병행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반론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계기로 돌대문토기 단순기 내지 단독기의 양상을 부정하고 타 문화요소의 존재를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돌대문토기와 공반되는 이중구연토기, 거치문토기, 공열토기에 대한 계통 및 조기설정에 대한 고민(고민정 2009; 김병섭 2009)이 그것이다.

강원 영서지역의 청동기시대, 그 가운데에서도 조기의 인식과 전기와의 구분문제에 대해 몇몇 논의가 있었다. 우선 돌대문토기의 조기의 설정에 자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견해(박성희 2009)가 있었고, 돌대문토기의 형태나 문양의 속성 분석을 통하여 즐문토기문화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려는 관점(최종모 2010)이 있었지만 재지 신석기문화와의 연결고리 부재와 토기에만 집중하여 유구와 석기에 관한 검토가 없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영서지역 청동기문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편년을 시도(김권중 2012)하였으나 세밀하게 접근하지 않아 대체적인 파악에 불과하여 자세한 편년들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이후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돌대문토기를 비롯하여 동일 시기의 다양한 토기 형식의 속성과 형태 변화를 분석하고 획기를 구하고자 하였으나(정원철 2012), 토기의 분석에만 치우친 결과로 인해 유구와 타 유물(석기)의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돌대문

토기와 관련된 유구와 유물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편년을 하고자 하는 시도(박영구 2012)가 있었지만 유구와 유물의 흐름이 다소 혼란스러워 역시 명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물질문화의 생물학적인 관념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생성(출현·등장), 성장(발전), 소멸(쇠퇴)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획기의 기준은 주류를 이루었던 돌대문토기의 등장, 발전, 소멸 등의 변천 과정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동시기의 타 문화요소, 즉 이중구연이나, 공렬문, 구순각목문, 외반구연 등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던 감이 많았다. 결국 주거지의 구조를 비롯하여 토기와 석기 등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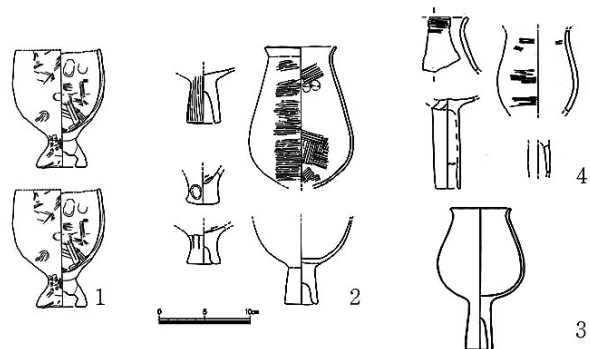
III. 단계설정

1. 주거지와 유물의 검토

단계 설정의 대상 주거지는 비교적 구조와 출토유물이 명확한 100기 가량이다. 유구는 중심기둥의 배치가 불명확한 것이 많고, 유물은 일괄유물로 보고되었지만 일부는 후대에 유입되거나 상부의 교란으로 후대의 것이 혼입되었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어 계통이나 시기를 파악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이 많았다. 또한 남한강유역은 중복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 서열을 검증하기가 어려웠다.

형식분류와 편년의 기준은 기존 연구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토기의 형태에 대한 세세한 분류는 다루지 않는다¹⁾. 그 이유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자의적의 기준과 해석에 따라 분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편년에 그리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국 유구와 유물의 조합을 통해 계통을 구분하고 주거지의 구조(규모, 평면형태, 노, 중심기둥 등) 유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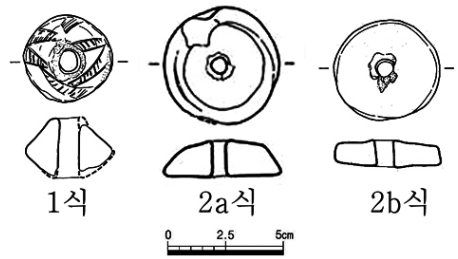
도1. 대부토기 각종

1) 돌대문토기의 경우 과거 다양한 속성의 분석, 즉 기형을 비롯하여 크기, 돌대의 단면형태, 각목의 방법과 형태, 돌대의 접합방법, 구연단의 형태나 돌대의 위치 등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최근에는 돌대거리 정도만 유효한 속성으로 간주하고 있다.(정원철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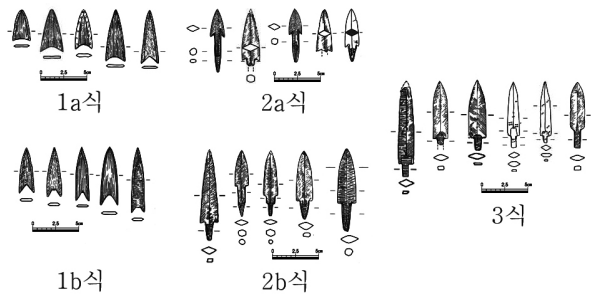
형식분류를 기초로 하였다. 주거지는 규모와 평면 형태가 중요한 속성인데 규모는 소형은 30m²이하, 중형은 80m²이하, 대형 80m²를 초과한 것으로 하고, 평면형태는 장단비가 방형은 1.5:1이하, 장방형은 2.5:1이하, 세장방형은 2.5:1을 초과한 것으로 하였다. 내부시설에서는 중심주공 배치방식(열구조)과 구조(주공식, 초석식), 노지의 구조와 수 배치방식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출토유물에서 토기는 기종과 기형, 문양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기종은 심발형, 천발, 웅형, 호형 등으로 대분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에 차이가 있고, 특히 대부토기는 토기의 형태나 대각의 길이와 형태에 따라 세분되고 흐름이 파악된다. 석기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시간적 변화에 따른 흐름의 파악에는 유효한데, 그 가운데 석검, 석촉, 석부, 석도, 어망추, 방추차 등의 형식 변화가 민간한 편이며 동북형석도, 환상석기, 부리형석기 등의 존재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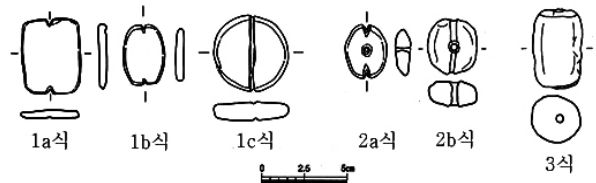
부가 유구가 단계를 설정하는데 유효한 기준이 된다. 이 가운데 석촉은 삼각만입의 무경식은 1a식과 1b식, 이단경식은 2a식(역자식)과 2b식(일반식)으로 구분하고 일단경식은 3식으로 분류하였다. 석부는 합인의 경우 횡단면이 두꺼운 것(厚斧)과 얇은 것이 있고 편인석부는 평면이 방형인 것과 장방형 것으로 구분된다. 방추차는 석제의 경우 0.7cm를 기준으로 얇은 것(厚)과 두꺼운 것(薄), 토제는 주판알모양(1식), 단면이 반원형인 것(2a식)과 세장방형인 것(2b식)으로 구분된다. 어망추는 평면이 장방형인 것(1a식), 타원형인 것(1b식), 홈이 있는 것(1c식), 타원형이나 원형에 구멍이 있는 것(2a식), 여기에 홈이 함께 있는 것(2b식), 구멍이 있는 봉상인 것(3식)으로 구분된다.



도3. 토제방추차 형식분류



도2. 석촉 형식분류



도4. 토제어망추 형식분류

2. 단계설정

지역의 구분은 편의상 북한강유역(한탄강유역 포함)과 남한강유역으로 구분하고 물질문화는 전체적으로 토기의 문양 속성과 주거지 구조를 기준으로 돌대문계와 이중구연계(외반구연), 공렬문계(A·B), 복합문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북한강유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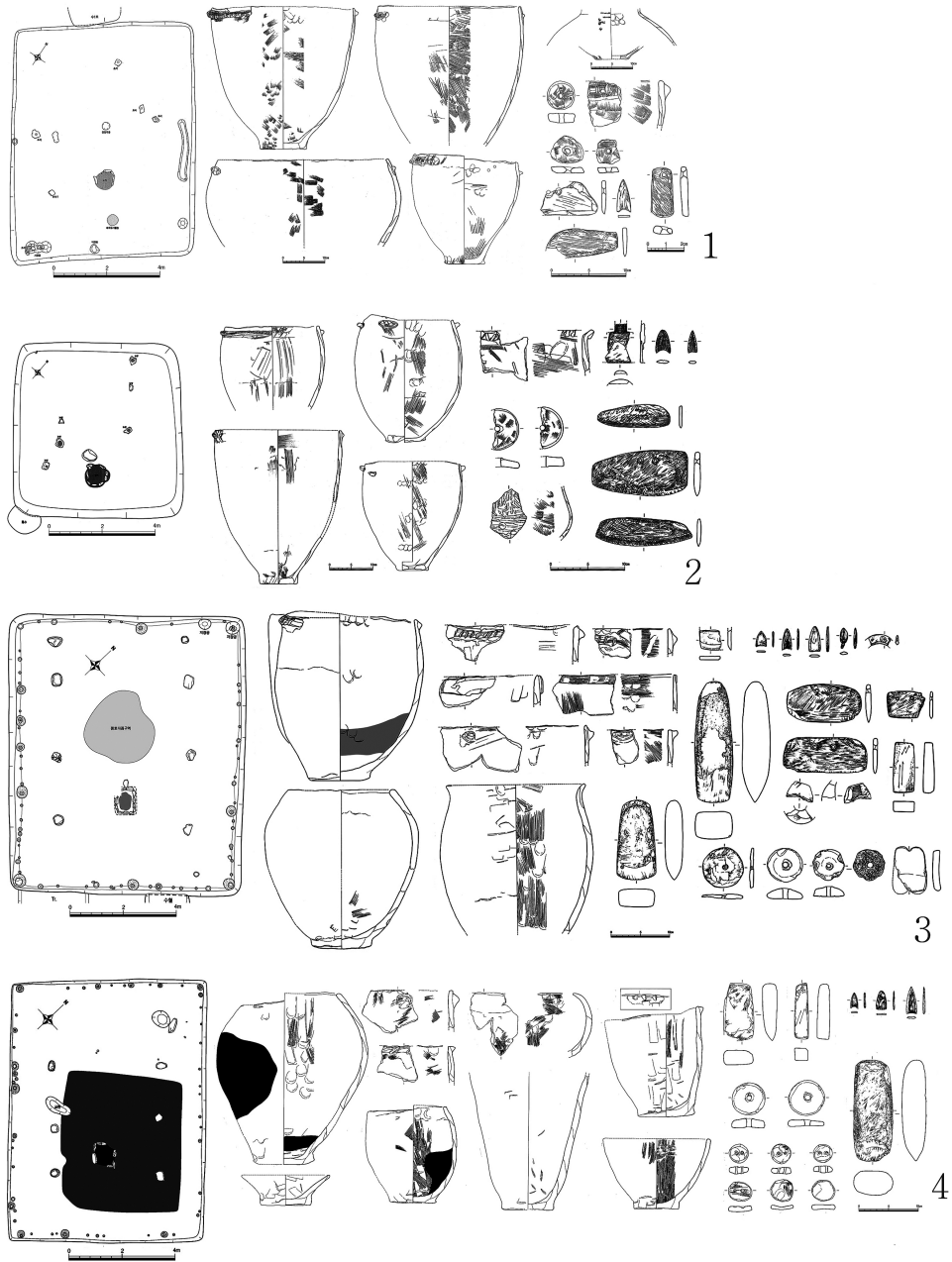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돌대문계 요소와 공렬문계(구순각목문) 요소가 강하지만 이중구연이나 외반구연, 복합문계의 요소도 존재하며, 모두 네 단계로 구분된다.

가. 1단계

이 단계에는 돌대문계의 요소가 중심이 된다. 외삼포리 3호와 5호, 철정리II C-1호와 C-5호가 해당되며, 철정리II A-28호와 56호도 이 단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의 구조는 대(중)형급의 방형이며 2열의 초석을 설치하였고, 장방형이나 타원형의 점토상이나 토상의 위석식도 1기를 강의 반대편 단벽쪽으로 편재하여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물은 심발형의 각목돌대문토기와 절상돌대문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내만구연의 용형인 것이 다수 있다. 이외에 이중구연토기(철정리II C-1호:무문양)와 이중구연거치문토기(외삼포리 5호)가 공반되고, 호형토기(외삼포리 3호, 철정리II A-56호)와 천발(철정리II A-28·C-5호), 외반구연토기(철정리II C-1호)도 일부 공반된다. 유상돌기가 부착된 토기(瘤附土器²⁾:철정리II C-1·5호)와 마연토기(외삼포리 5호)도 존재한다. 석기는 양인의 장방형과 제형 석도, 방형의 편인석부, 횡단면이 두꺼운 합인석부(厚斧), 삼각만입의 무경식(1a식) 석촉, 단면 반원형(2a식)과 장방형(2b식)의 토제방추차와 단면이 얇은(薄) 석제방추차, 장방형(1a식)과 (타)원형(2b식) 토제어망추, 공구형석기, 환상석기, 단추형토제품(철정리II C-5호) 등이 특징적인 유물이다. 이 외에도 외삼포리 5호에서는 이단병식의 석검이, 외삼포리 3호에서는 옥이 출토되었고, 철정리II C-1호에서는 투박조개로 만든 패천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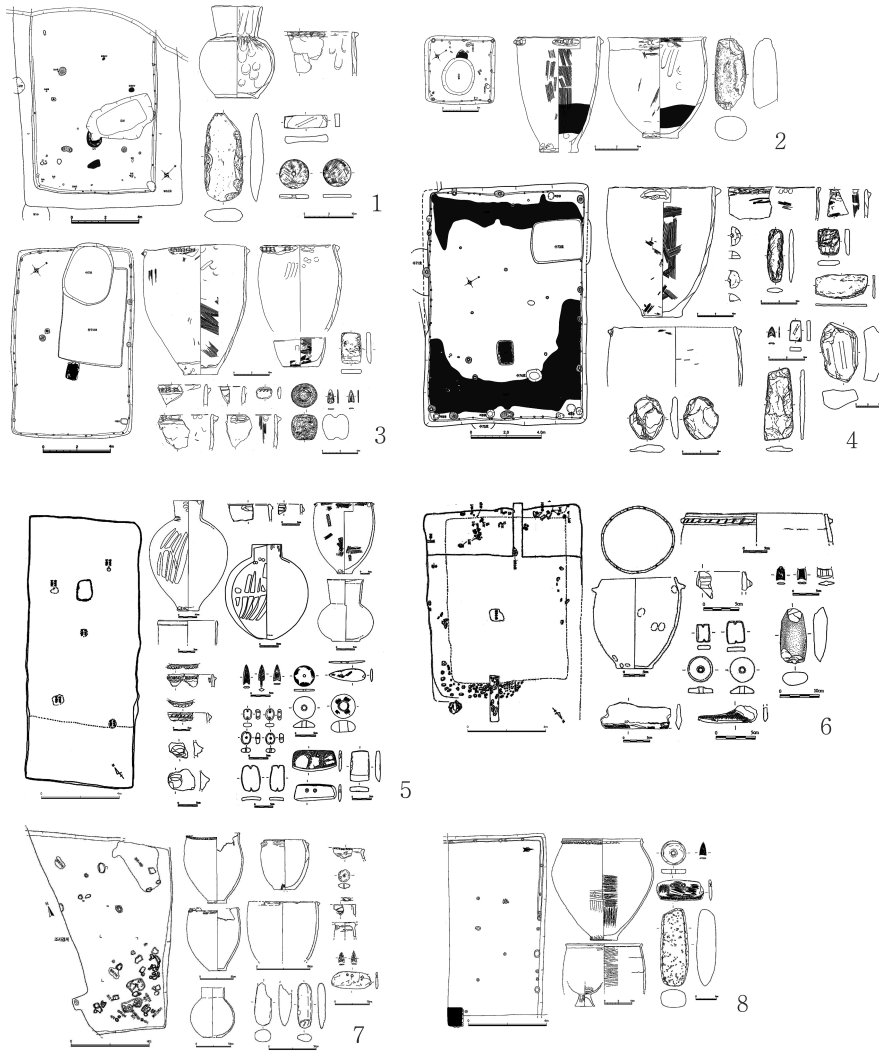
2) 유부토기는 기존에 유상돌대문, 파수토기, 꼭지형파수토기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절상돌대문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정원철(2012)의 분류에서는 돌대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3:1이하인 것을 유상돌대라 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장식적 속성이 강한 돌기(瘤)의 형태를 띤 것(철정리II C-1·5호, 연하리 13호, 동화리 등)만 간주한다.



도5. 북한강유역 1단계 돌대문계 주거지와 출토유물
(1·2:외삼포리3·5호, 3·4:철정리II C-1·5호)

나. 2단계

2단계는 돌대문계와 비돌대문계로 구분된다. 돌대문계는 철정리II A-1·2·3·11·12·21호, 연하리 1호와 13호, 신매제방 1호, 하화계리 1호가 해당된다. 일부(철정리II A-11호)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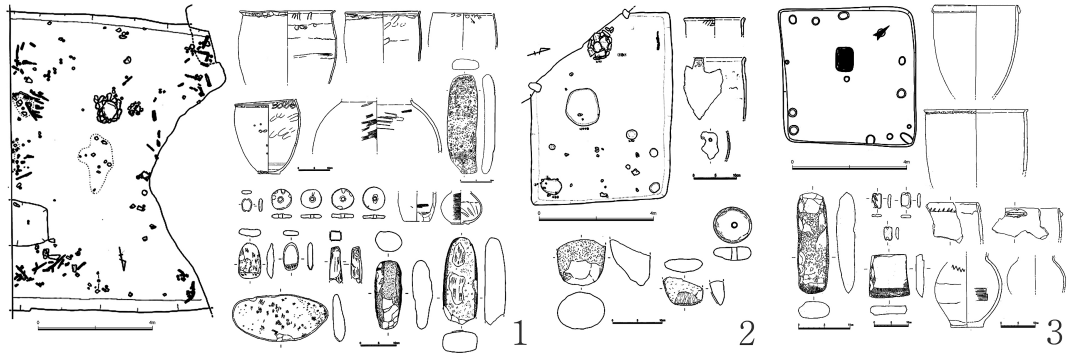
도6. 북한강유역 2단계 돌대문계 주거지와 출토유물

(1~4:철정리Ⅱ A-1·11·12·21호, 5·6:연하리 1·13호, 7:신매제방 1호, 8:하화계리 1호)

형급을 제외하면 중·대형급의 장방형이 주류인데, 2열의 주공식 중심기둥을 설치한 것이 많고, 점토상이나 토상의 위석식노 1기를 단벽쪽으로 편재하여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출토유물에서 토기는 전단계와 큰 차이가 없지만 변형된 것으로 판단되는 하화계리 1호 출토품을 제외하면 무문양인 내만구연의 용류는 사라지고 장경호와 호형토기의 증가가 눈에 띈다. 이 중구연단사선(철정리Ⅱ A-12호)이나 외반구연(하화계리 1호)의 요소도 일부 존재하고 높이가 낮으면서 저부가 넓은 대각(短廣)의 대부토기(신매제방 1호, 하화계리 1호)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연하리 13호 출토품 중에서는 구순각목문이 시문된 유부토기가 특징적인데 각목의 양

표 1. 북한강구역 1~2단계 주거지와 출토유물 속성표

주거지 (호수)	평면형태	규모	면적 (㎡)	중심 기둥 설치 방식	노지 구조 (바닥)	플래판				이중구연			외 반 구 연	기 치 문	구 순 각 목	종 결	유 부	대 부	마 연	토기 기 타	중요적기구성						절대연대	단 계
						각 주	침 상	침 주	무 문	단 사	기 치	석 축									석 도	방 추 차		어 망 추	석 기 기 타			
																						2a	2b			土		
철정리II-C1	방	대	92.5	초석	위(점)	?	●	●	●	●	●	●	합(厚) 편(方)	方	2a	薄	1a	내만용		합(厚) 편(方)	方	2a	薄	1a	내만용		3110±60, 3310±60	1 단 계
철정리II-C5	방	대	84.3	초석	위(점)	●	●	●	●	●	●	●	합		2b	단추	1a	내만용		합		2b	단추	1a	내만용		3430±50, 3540±50	1 단 계
의삼포리3	방	대	82.5	초석	위(점)	●	●	●	●	●	●	●	●		2b		1a	호형			梯	2b		1a	호형		3080±60	1 단 계
의삼포리5	방	중	48.6	초석	위(토)	●	●	●	●	●	●	●	●		2b		1a				方	2b		1a		3120±80	1 단 계	
철정리IIA-11	방	소	14.5	-	위(점)	●	●	●	●	●	●	●	二重								합?						3000±50, 2920±50	2 단 계
철정리IIA-12	장	중	73.6	초석?	위(점)	?	●	●	●	●	●	●	어 망				1a				편(長)	2a	1b		1a	공구형	3110±50, 2860±50	2 단 계
철정리IIA-21	장	대	127	주공	위(점)	?	●	●	●	●	●	?					1a				편	2a				3070±50, 2980±60	2 단 계	
연하리1	장	대	86.8	?	위(토)	?	●	●	●	●	●	●				●				합(厚) 합(長)	2a	2a	薄	1a 단추	환상	3030±60, 3070±50 3000±60, 3090±60	2 단 계	
연하리13	방	대	78.4	?	?	●	●	●	●	●	●		유 부				1a			합?	2a,2b		1a		석검(장?)	-		2 단 계
현암리1·3	방	소	22.6이 하	주공?	위(석· 점)		●	●	●	●	●	●	●	●						편(方) 합(長)			1a			3020±40(1호)	2 단 계	
현암리2·4	방	중소	32.5 이하	?	위(점· 토)	?	●	●	●	●	●	□ 뿔					1a?			합?						-		2 단 계
대성리25	방?	중?	-		위(석)							二重								합(厚)	2b	1b				2945±20	2 단 계	
대성리26	방	소	28.1	?	위(석)							二重								●	2b				환상	-		2 단 계
신매계항1	?	대?	-	초석?	?	●	●	●	●	●	●		위 반				1a			합(長) 합(厚)	2a	2a		2a		3010±50, 2940±50 2880±60	2 단 계	
하화계리1	장?	중?	-	주공	위(점)		●	●	●	●	●	●					1a			합(長)	2b	2b				2845±50, 2880±50	2 단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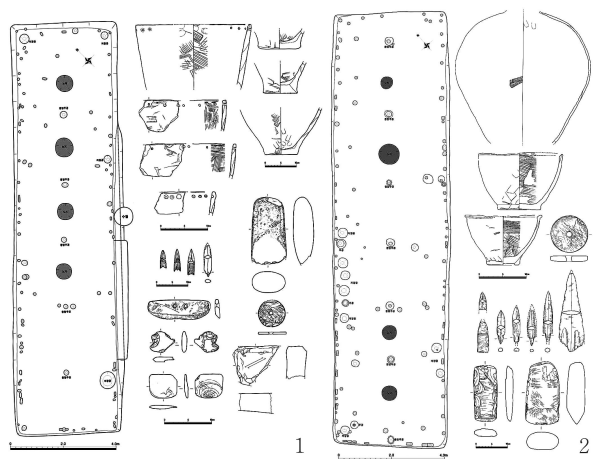
도7. 북한강유역 2단계 비돌대문계 주거지와 출토유물 (1·2:대성리 25·26호, 3:현암리 1호)

상으로 볼 때 가장 이른 단계의 구순각목문으로 판단된다. 석기상은 1단계와 큰 차이가 없지만 동북형석도(연하리 1호)가 등장하고 중앙이 투공(2a식)된 토제어망추(연하리 13호, 신매제방 1호)가 공반된다. 현암리 2호는 전주나 절상의 무각목이 특징적이며, 이중구연단사선문과 구순각목문이 결합된 토기도 있다.

비돌대문계는 외반구연의 요소를 가진 대성리 25호와 26호, 이중구연(단사선문) 요소를 가진 현암리 1·3호가 해당된다. 대성리 25호와 26호는 소형과 중형급의 방형계통으로 모두 석상 위석식노를 설치하였으며 돌대문토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외반구연의 심발형토기와 장경호를 비롯한 호형토기가 출토되었고 석기 조성은 돌대문계와 유사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합인석부가 다수를 차지한다. 현암리 1·3호는 소형급의 방형이 특징이며 위석식(石·粘土床) 노가 설치되어 있다. 유물은 무문양이거나 단사선이 시문된 이중구연이 주류이며 이외에 돌대문도 일부 확인되지만 외반구연이나 거치문(호)도 존재한다. 석기 조성은 소량이어서 자세하지 않지만 돌대문계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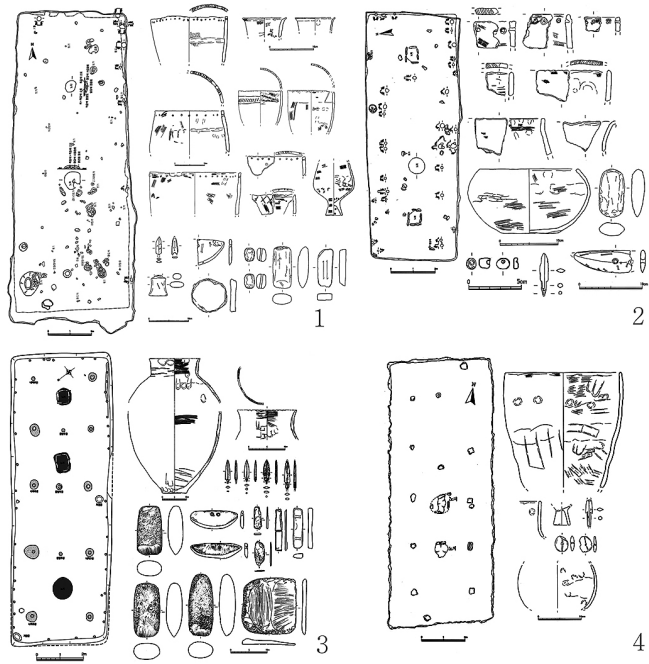
다. 3단계

이 단계는 주로 공렬문계A·B와 이중구연계, 복합문계로 구분되고 돌대문계 요소는 다른 요소와 복합되어 일부만 확인된다. 공렬문계 A와 B는 거의 유사한 계통이지만 평면형태, 노의 구조, 중심주공 배치방식, 일부 출토유물(대부토기)의 유무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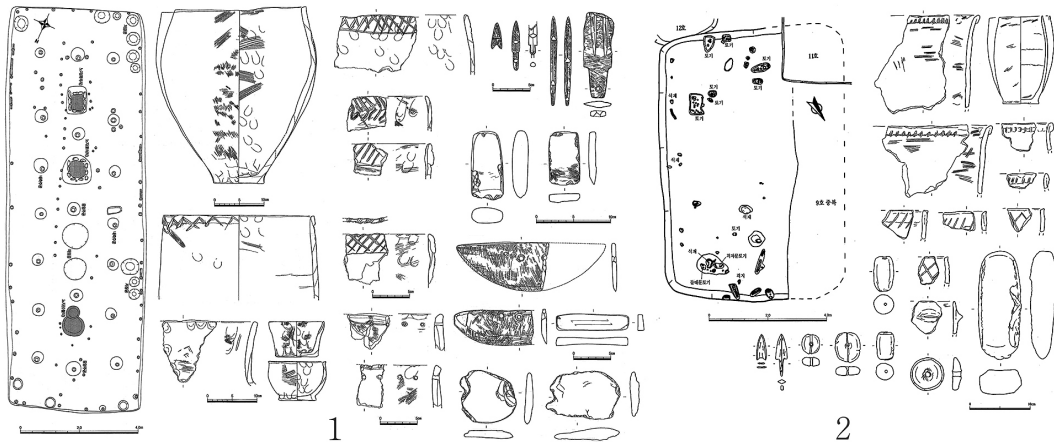
도8. 북한강유역 3단계 공렬문계A 주거지와 출토유물 (1·2:용암리 93·115호)

공렬문계A는 용암리 93·115호가 대표적이며 대형급의 세장방형이 중심을 이루고 소형의 방형인 것(용암리 130호)도 있다. 중앙 1열 또는 3열의 주공식 중심기둥을 설치하며 수혈식노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주로 공렬문만 시문되는 특징이 있으며 심발형과 발형의 토기, 대형의 호형토기, 적색마연토기 등 기종이 비교적 단순화되고, 석기는 석검(유혈구 이단병식), 합인석부, 1b식과 2b식의 석촉, 장방형계의 편인석부, 단면이 두꺼운 방추차, 부리형 석기 등이 출토된다.



도9. 북한강유역 3단계 공렬문계B 주거지와 출토유물
(1·2:신매대교 21·26호, 3:철정리II A-54호, 4:달전리 33호)

공렬문계B는 철정리II A-22·54호, 거두2지구 1~6호, 외삼포리 1호, 달전리 33호, 신매대교 18·21·26호 등이 대표적이고 유물상으로 볼 때 달전리 36호와 39호도 이 계통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주거지는 중(대)형의 장방형이나 세장방형을 띠고 위석식과 수혈식의 노를 갖추었으며, 중심주공은 2열의 주공식이나 초석식(신매대교 21호)이다. 공렬문과 구순각목문



도10. 북한강유역 3단계 이중구연계 주거지와 출토유물
(1:와수리 4호, 2:신매대교 10호)



도11. 북한강유역 3단계 복합문계 주거지와 출토유물
 (1~5:금산리 A-1·2호·B-1·4·6호, 6~7:천전리121-16번지 7호)

이 결합된 것이 많고, 신매대교 21호에서는 단사선문이나 X자문이 시문되기도 한다. 이외의 출토유물은 공렬문계A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단각(短狹의) 대부토기, 2b식과 3식 어망추가 특징적이다.

이중구연계는 공렬문계A와 주거지 구조에서 유사하지만 출토유물에서 차이가 있다. 천전리 121-16번지 10호, 와수리 4호 등이 해당되며 천전리121-16번지 10호는 구조가 명확하지 않지만 와수리 4호는 대형급의 세장방형에 위석식과 수혈식의 노를 갖추었으며 중앙 1열과 내측 2열의 주공식 중심기둥을 설치한 구조이다. 유물은 이중구연의 단사선, 거치문, 사격자문 등이 중심이고 공렬문, 구순각목문, 돌대문(절상) 등이 소량 확인된다. 석기상은 공렬문계와 유

표 2. 북한강유역 3단계 주거지와 출토유물 속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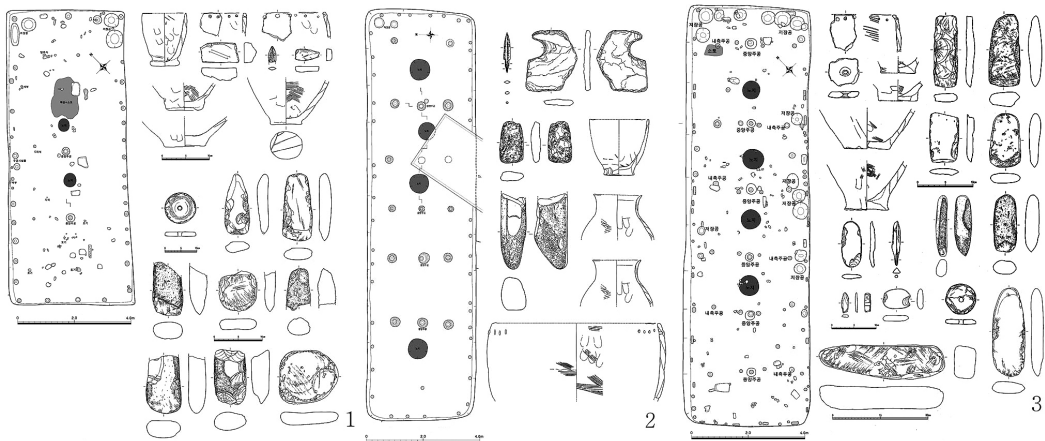
주거지 (호수)	평면형태	규모	면적 (㎡)	주실 기둥 설치 방식	노지 구조 (비파)	출토문			이중 구연	의 반구연	기 치 문	구 순 각 목	공 물	유 부	대 부	마 덤	토기타	중요석기구성						절대연대	단 계							
						각목	무각목	구 순										진 주	진 상	진 상 주	무문	단 사	기 치			석축	석부	석도	방추차		이명추	석기타
																													土	石		
금산리A-1	장	대	122.9	주공?	위(토)					●	●	●							2a	薄		구형 봉상	2810±40, 2850±40 2880±40, 2790±40	3 단 계								
금산리A-2	방	소	15.5	주공	위(토)		●			●		●							1a	합, 편(方)			2870±40, 2940±40 2840±40, 2670±40									
금산리B-1	방	소	25.5	주공?	위(점)																		2870±50, 2900±50 2760±40, 2850±50									
금산리B-4	방	중	78.6	주공	위(점)		●			●		●							1a	편(方) 鱗?魚	1,2b		2950±40, 2880±40 3010±40, 2940±40 2900±40									
금산리B-6	장방	중	41.4	주공?	수(막)		●				●								2b	합			-									
친전121-2호	방?	중	-	?	위(석)									筒?					2		2b,3	곡옥	3020±80									
친전121-7호	?	?	-	?	?		●			●									1a				2810±50, 2800±50									
친전121-8호	방?	소	-	?	수		●			●													2800±60									
친전121-10호	방?	중?	-	?	?					●											2a?		2910±50, 2930±60									
외수리4	세장	대	80.3	주공3	위(토)· 수														1a,3	합,편			1050±130(BC)(OSL)									
철정IIA-54	세장	중	55	주공2	위(토)· 수														1b,2b	합,편(長)			2880±50, 2810±50									
철정IIA-22	장	중	46.7	주공1	수					이· 격		●							2b,3	합			3000±50									
신내대교17	방	소	24.1	주공?	수?					●		●							1b,2b,3	합	2b		2840±50									
신내대교18	장방	소	28	?	?					●		●		筒,短					●				2970±50, 2890±50									
신내대교21	장방	중	77.9	주공?	수					●x,단		●		短					1b	합,편	舟		-									
신내대교26	세장	중	45.6	주공2	위·수					●		●							2b	합	長舟		-									
달전리33호	세장	중	41.3	초석2	위·수									短					2a				-									
달전리36	방	중	32.4	?	수														1b	합	厚		3110±60(厓)									
달전리39	방	중	37.4	주공2?	수									●					합	합			3140±60(바)									

사한데 어망추(2b식과 3식)는 공렬문계B와 동일하다.

복합문계는 금산리 A-1·2호·B-1·4·6호, 천전리121-16번지 2·7호 등이 해당된다. 주거지는 전단계의 구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소형~대형 등 다양하고 방형이나 장방형을 띤다. 점토상이나 토상의 위석식노가 주로 갖추어져 있고 일부 수혈식(금산리 B-6호)이 설치되기도 한다. 주거지의 구조는 돌대문계와 유사하지만 토기는 돌대문(각목-절상), 공렬문(구순각목문), 이중구연(거치문·단사선문), 외반구연 등 매우 다양한 요소가 복합되는데 문양에서 중심 주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금산리 B-4호에서는 대상파수와 봉상파수³⁾와 같은 이질적인 요소가 확인되기도 한다. 석기는 무경식의 1a식석촉, 장방형석도, 방형 편인석부, 단면이 얇은 석제방추차 등 전단계의 요소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도 있지만 새로이 2b식석촉, 주형석도, 2b식과 3식 어망추가 새로이 등장한다.

다. 4단계

다른 요소는 확인되지 않고 공렬문계A의 요소만 확인된다. 용암리 62·68·71·77·126호, 천전리 56·59호 등이 대표적이며 대형급의 세장방형의 주거지가 중심을 이룬다. 내부시설은 전단계와 차이 없이 중앙 1열식이나 3열식의 주공식 중심기둥이 배치되고 수혈식노가 설치된다. 출토유물에서 토기는 전단계와 큰 차이 없이 심발형의 공렬토기, 호형토기, 적색마연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구순각목문이 대부분 사라진다. 석기는 전단계와 큰 차이는 없지만 주상편인석부가 등장한다.



도12. 북한강유역 4단계 공렬문계A 주거지와 출토유물

(1:용암리 62호 2:천전리 59호 3:용암리 77호)

3) 천전리121-16번지 출토 대각은 기존의 통형인 대부토기의 대각과 비교해 볼 때 봉상파수의 가능성이 있다.

2) 남한강유역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중복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과 시간적 흐름에 따른 유구와 유물의 형식적 변화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크게 돌대문계와 공렬문계로 구분되고 소수이지만 이중구연계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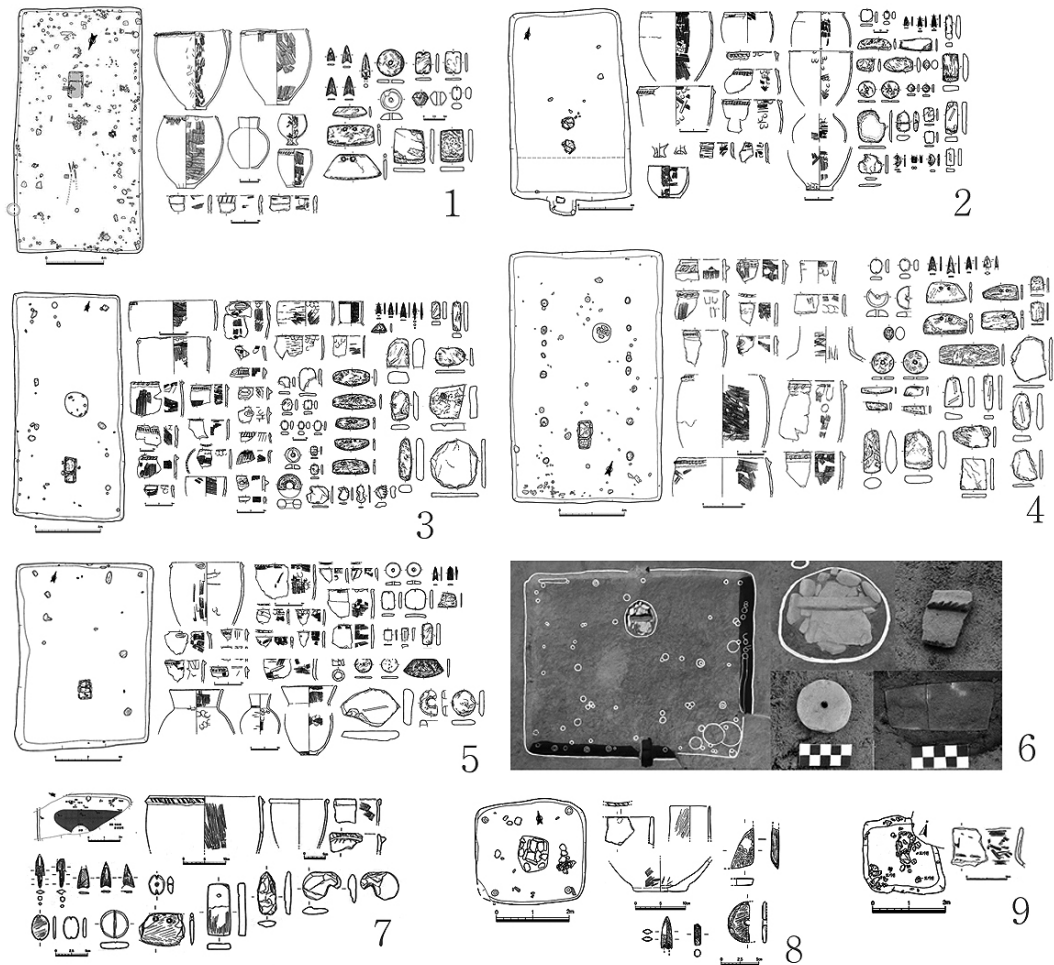
가. 1단계

모두 세 가지 계통이 존재한다. 첫째는 돌대문계 요소를 가진 주거지로 제원 황석리유적이 일찍부터 알려져 있고 정선 아우라지유적 1·6·8·9·11·12·13호, 영월 주천리 14·17호, 평창 천동리(예맥) 2호, 평창 종부리 II-2호 등이다. 주거지는 대형급의 방형과 장방형의 평면형태에 石床이나 粘土床의 위석식노를 설치하였는데, 노는 강의 반대편 단벽에 치우쳐 1~2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격벽시설을 갖추거나 연결한 것(아우라지 1·8·11·12호)이 많은데 남한강유역의 지역적 특징이기도 하다. 중심기둥은 2열의 초석이나 주공이 배치된다. 종부리 II-2호는 다소 이질적인데 중형급의 방형으로 장축은 강의 흐름과 직교하지만 석상위 석식의 노는 장벽쪽으로 편재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와 평면형태, 구조 노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 단계에서도 가장 이를 가능성이 있다.⁴⁾ 주천리 14호는 소형급의 방형인데 중앙에 석상위석식의 노를 설치한 것으로 태장동 6호도 같은 단계로 판단되고, 이후 단계의 주천리 15·16호, 종부리 III-8호로 구조적 전통이 이어진다. 주천리 17호는 노(土床)의 구조나 돌대문토기를 감안하면 이 단계에서도 가장 늦을 가능성이 높다.

유물은 주로 옹형이나 심발형의 돌대문토기(전주하는 각목문과 절상의 각목문과 무각목)가 출토되고 장경호(마연)와 무문이거나 단사선이 시문된 이중구연토기(아우라지 1·8호), 외반구연토기(아우라지 6·8호), 다양한 형태의 호형토기, 대부토기(1·6호) 등이 주류인데, 대부토기는 아우라지 1호와 공렬문계인 2호는 내만구연토기(옹?)에 넓게 벌어진 낮은 대각(短廣)이 부착된 것으로 가장 이른 단계의 대부토기로 판단된다. 주천리 14호에서는 구순각목문이 시문된 토기가 공반된다.

석기는 삼각만입의 무경식석촉(1a식), 역자식의 이단경식석촉(2a식), 양인의 장방형과 제형 석도, 방형의 편인석부, 합인석부(厚斧), 환상석부, 방추차(石:薄, 土:1식, 2a·b식), 어망추(1a·b식, 단추형), 부리형석기(아우라지, 천동리) 석검(아우라지 6·8호) 등이 출토되었다. 역자식의 이단경식석촉(2a식)은 다수의 주거지(아우라지 1·6·8·12호, 천동리 2호)에서 출토

4) 박영구(2002)는 출토된 돌대문이 구연단에 거의 붙은 형태인 점과 구순각목토기가 공반되었다는 이유로 전기전반인 남한강유역 3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편년하였지만, 출토 당시의 사진을 보면 구연단과 다소 이격되어 있고 구순각목문은 이른 단계부터 확인되기 때문에 시기를 낮춰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도13. 남한강유역 1단계 돌대문계 주거지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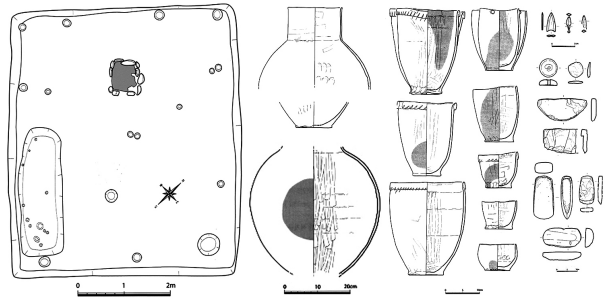
(1~5:아우리지 1·6·8·12·13, 6:중부리II-2호, 7:천동리(예) 2호, 8:주천리 14호, 9:태장동 6호)

되었는데 북한강유역에서는 이 보다 늦은 단계에 해당하는 금산리 A-1호와 달전리 33호에서 만 출토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남한강유역의 지역적 특색이 강한 유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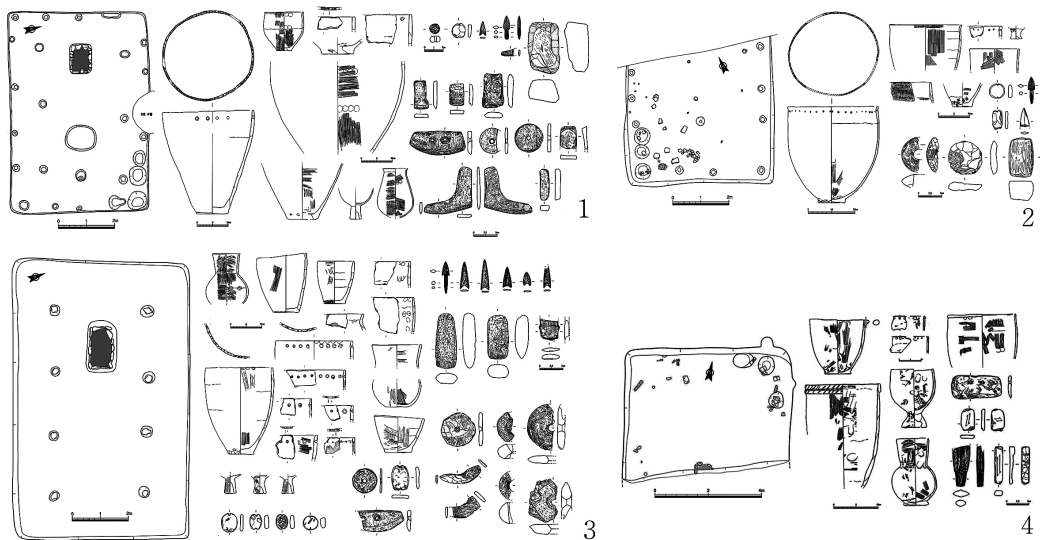
다른 하나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요소를 가진 것으로 동화리 1호가 해당된다. 1기가 조사되었는데 소형급의 평면 방형 주거지로 粘土床의 위석식노지를 갖추었으며, 유물은 심발형의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유상돌기가 부착된 심발형토기(瘤附土器), 호형토기, 2a식 토제방추차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이중구연의 폭이 다소 좁은 이중구연단사선문이 주류이며, 무경식축(1a식), 합인석부, 편인석부, 장방형과 주형의 석도 등이 출토되었다. 이중구연단사선문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층적대지에 입지하며 초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락동유형과는 차이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른 단계의 공렬 문계 요소를 가진 것으로 아우라지 2호와 주천리 6·7호가 해당되며 주천리 1호도 유물상으로 볼 때 동일 계통의 늦은 단계 주거지 가능성이 있다. 중형급의 방형 주거구조를 띠며 주축방향이 강의 흐름과 직교하거나(아우라지 2호) 나란한 것(주천리 6·7호)도 있다. 중심기둥 배치는 주천리 6호와 7호는 2열 구조를 보이는데 7호는 주공식과 초석식이 결합된 구조이며, 6호는 주공식인 것이 특징이다. 노는 1기가 설치되는데 단벽으로 편제된 토상의 위석식이다.

토기는 아우라지 2호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과 유부토기가 확인되기도 하지만 심발형 위주의 공렬문과 구순각목문이 단독 혹은 공반되거나 결합되고 이러한 토기 조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토기는 아우라지 2호 출토품은 바닥이 넓고 낮은 대각(短廣)이 부착된 옹형이고, 주천리 1호와 7호 출토품은 바닥이 좁고 낮은 대각(短狹)이다. 이 외에 호형토기와 마연장경호 등이 공반된다. 석기 조성은 돌대문계 요소와 거의 동일한데 삼각만입의 무경식석촉(1a식)과 역자식의 이단경식석촉(2a식), 과도기적 형태의 석촉(주천리 7호), 환상석기, 장방형의 편인석부 등과 어망추는 1a식(주천리 7호)도 있지만 대부분 1b식이다. 이외에 석검(주천리 7호, 아우라지 2호), 직배호인의 제형석도, 동북형석도도 특징적이다.



도14. 남한강유역 1단계 이중구연계 주거지와 출토유물 (동화리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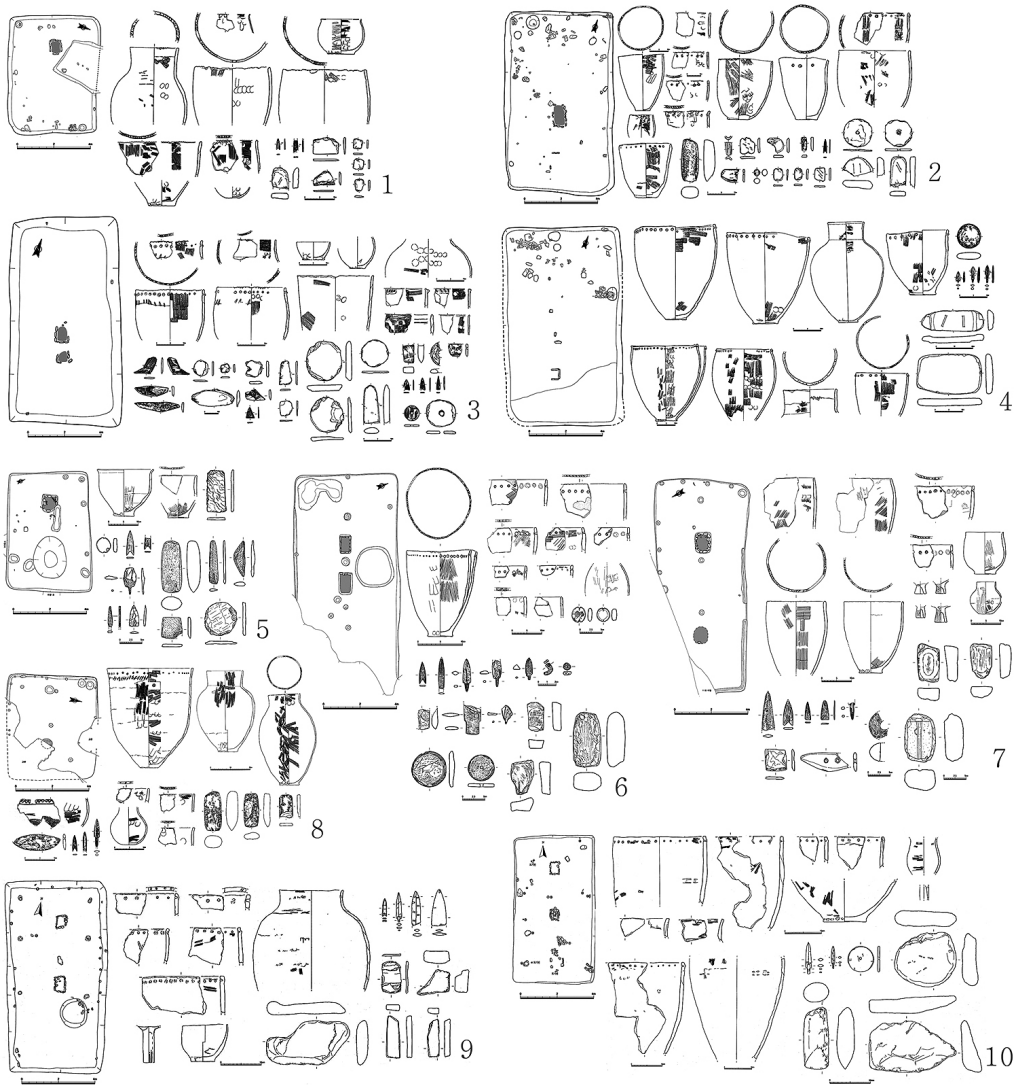
도15. 남한강유역 1단계 공렬문계 주거지와 출토유물(1~3:주천리6·1·7호, 4:아우라지 2호)

표 3. 남한강유역 1단계 주거지와 출토유물 속성표

주거지 (호수)	평면 형태	규모	면적 (㎡)	중심 기둥 설치 위치	노지 구조 (바닥)	돌대문				이중 구덩	외 반구덩	거 치 문	구 슬 각 목	공 물	유 부	대 부	마 면	토기 타	중요적기구성						절대연대	단 계				
						각 목		무 각 목											무 문	담 사	거 치	석 축	석 부	석 도			방 추 차		이 명 추	석 기 타
						진 주	철 상	진 주	철 상																		土	石		
동화리1	방 소	29.2	29.2	주공?	위(점)				●					●			호형	합,편	舟,方?	2a				2980±50, 3050±50	1 단 계					
주천리7	?	-	-	주공	위(토)	●																	석김(有柄)	2990±40						
주천리14	방 소	8.7	8.7	주공	위(석)						●					장 경	편(方)		薄				2980±40							
이우라지1	장 대	150.6	150.6	주공	위(점)	●		●1	●				?	●	내 반	장 경	외반구덩?	方,梯	1,2a	1a,2a	1a,2a	1a,2a	薄	1a,2a			3010±60, 2900±50			
이우라지2	?	-	-	?	위(토)				●				●	●	장 경	장 경		方					석김(有莖)	2880±50						
이우라지6	장 대	119.1	119.1	주공?	위(석)	●				●			●?	●			외반구덩 호형	합	方,梯	1a,2a	1a,2a	薄	1a,2a	-						
이우라지8	장 대	156.8	156.8	초석	위(석)	●		●	●				?		장 경	장 경		편	方(梯)	2a	1a,2a	1a,2a	薄	1a,2a			2810±50			
이우라지9	방 중	73.3	73.3	?	?	?											호형		●?			薄	1b	-						
이우라지11	장?	-	-	?	위(석)	?		?	●		●		●	●				합,편?		2a	1a	1a	1a	부리형, 옥,석창?			-			
이우라지12	장 대	141.7	141.7	초석	위(석)	●		●							장 경	장 경	호형	합,편(方)	方,梯	2a,2a	1a,2a	1a,2a	薄	1a,2a			-			
이우라지13	장?	90.7	90.7	초석	위(석)	●		●					●?	●			호형 외반구덩?		梯	2a,2a	1a	1a	1a	환상			2900±50			
천동리(예)2	?	-	-	?	?	●		●	●									●	方?		1b,2a	1b,2a	1b,2a	2860±40, 2830±40 2930±40, 3120±50						
중부리II-2	방 중	40.0	40.0	주공	위(석)	●							●					●	方				薄?				-			
주천리6호	방 중	34.8	34.8	주공	위(토)					●			●	●				편(長)	梯?				薄	ab			2940±40			
주천리7호	방 중	62.4	62.4	초(주)	위(토)								●	●			석김(이)	합	梯?				薄	1a,2a	2940±40					

나. 2단계

다른 요소가 일부 혼재하지만 주류는 공렬문계이다. 아우라지 3·5·7·10·14~18호, 주천리 4·5·8·9·12호, 가현동 1~3·5·8호, 태장동1~4호, 천동리(강고) 1·2호, 천동리 220번지 1호 등의 주거지가 해당된다. 주거지는 소형급의 방형(가현동 8호)도 있지만 중형급의 장방형이 많다. 장축은 강의 흐름과 직교하지만 나란한 것도 다수(아우라지 4·5호, 주천리 8·11호) 있다. 노는 주로 토상의 위석식이며 1~2기가 단벽쪽으로 편재하지만 중앙 치우쳐 설치되기(아우라지 16·18호, 주천리 8·12호)도 하며, 수혈식인 것(아우라지 18호, 주천리 9호)도 있다. 격벽시설이 확인되는 것



도16. 남한강유역 2단계 공렬문계 주거지와 출토유물

(1~4:아우라지3·4·7·10호, 5~7:주천리4·8·9, 8:천동리220번지, 9·10:가현동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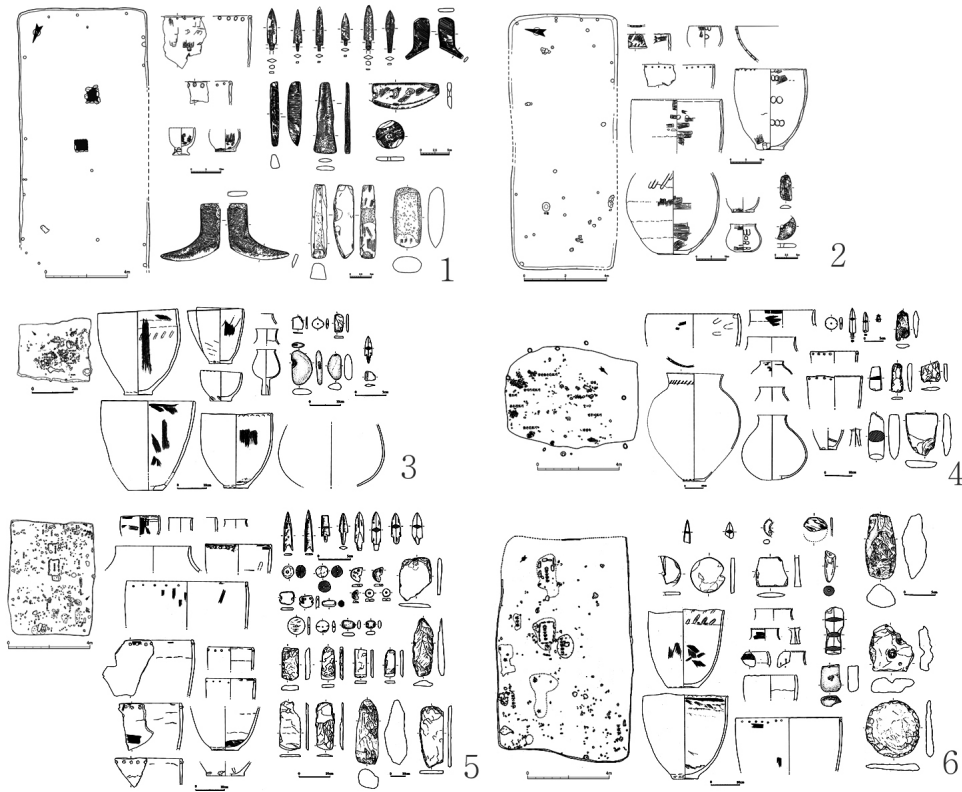
은 없지만 2기가 설치되는 경우 근접하기도 하지만 전단계와 달리 점차 간격이 넓어진다. 중심주공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주천리 8·9호와 같이 중앙 1열의 배치를 보이는 것이 있다.

토기는 전반적으로 공렬문계 요소가 주류를 접하는데, 대부분 심발형의 공렬문과 구순각목문이 단독 혹은 공반되거나 복합시문되고, 퇴화된 이중구연에 단사선문이나 거치문, X자문 등이 시문된 것(아우10호, 가현동 1·4·6·8호, 천동리 220번지), 횡대구획문과 같은 요소도 일부 확인되며 전형적인 적색마연토기호가 등장한다. 대부토기는 바닥이 좁고 낮은 대각(短狹)의 용형이 주류이지만 태장동에서는 통형의 대각을 부착한 형태만 확인되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 구순외연각목(아우라지 4호, 아우라지 11호)토기도 출토된다.

석기류는 전단계의 석기상과 유사하지만 석촉은 무경식(1b)식과 이단경식(2b)식이 주류이고, 석제방추차는 두꺼워진 것(아우라지 18호)도 확인되며, 주형석도(아우라지 17호, 가현동 1호), 대형방추차(아우라지 7·10·17·18호, 주천리 4·8호)가 특징적으로 출토되었다.

다. 3단계

2단계와 구분이 매우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 가현동 7·14호, 조동리 1·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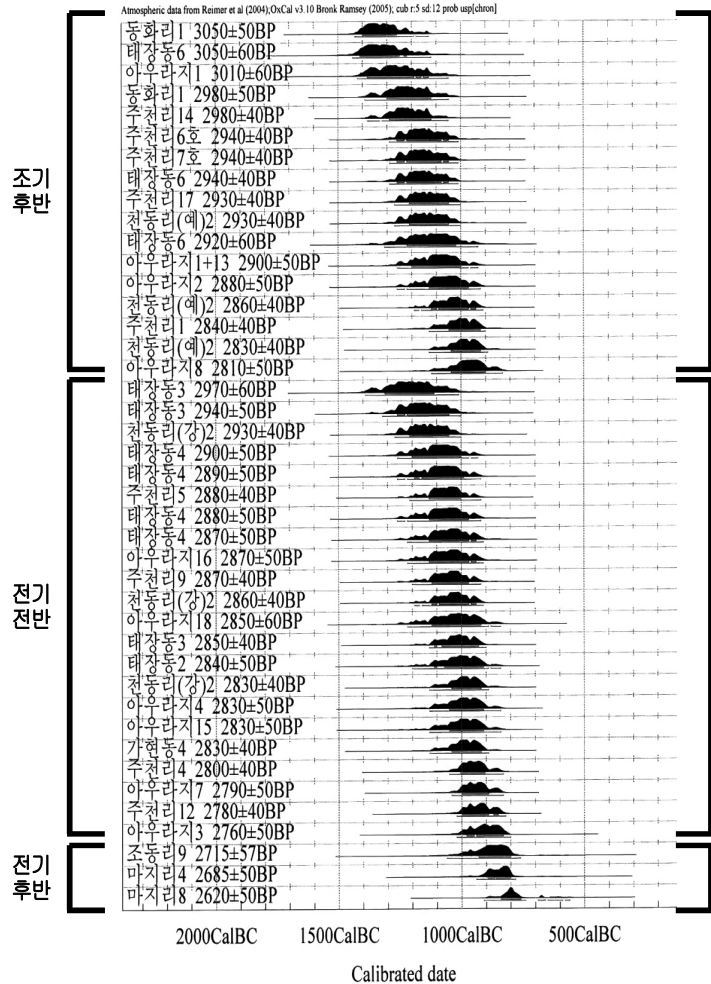


도17. 남한강유역 3단계 공렬문계 주거지와 출토유물(1~3:가현동 14·7호, 3~6:조동리 1·3·7·9호)

최근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돌대문토기와 관련된 연구성과에서는 돌대문토기의 편년을 조기~전기전반으로 설정한 견해가 있다.(정원철 2012; 박영구 2012) 전반적으로 이에 동의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정원철(2012)은 돌대문토기의 여러 속성 가운데 돌대의 위치만이 시간성을 반영한다고 보고 조기를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하였으나 전반의 실체에 대해서는 존재 가능성을 두고 돌대문토기문화 전체를 후반으로 설정하였다.⁵⁾

각 단계의 절대연대는 동일 유구내에서 검출된 절대연대치도 매우 다양하고 측정기관에 따라 다

르게 확인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조기 전반의 절대연대⁶⁾는 철정리II유적과 외삼포리유적에서 검출된 것이 있는데, 철정리II유적 A-1호와 C-5호 등 다수의 시료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어 기존의 절대연대와 비교해 볼 때 문제가 많다고 판단된다. 많은 연대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3100BP 전후가 하한연대로 판단된다. 조기 후반은 다수의 유적에서 확인되었듯이 다소 늦은 연대도 있지만 대략 2950BP를 전후한 시기까지 집중되므로 하한은 이 연대로 판단된다. 전기전반은 철정리II A-22호(3000±50BP), 용암리 104호(3010±60BP), 달전리 36호



도19. 남한강유역 조기후반~전기의 절대연대

5) 이는 돌대문토기문화가 중국 동북지역이나 북한을 거쳐 파급된 것으로 보고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거나 유문토기적 속성의 부재를 감안하였는지도 모르겠다.
 6) 절대연대는 기본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돌출적인 것과 다수가 검출된 경우 집중되는 연대치에서 벗어난 것은 제외하였다.

(3110±60BP:퇴적층)·39호(3140±60BP) 등도 절대연대상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있지만 유물 상으로는 이 단계에 해당된다. 대부분 2950BP에서 2800BP 사이에 집중된다. 전기 후반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용암리, 신매대교, 거두2지구(거두리) 등의 유적에서 2800~2700BP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

남한강유역은 초기 전반으로 소급될만한 유구와 절대연대가 없으며, 전기 후반도 동화리 1호(3050±50BP)와 아우라지 1호(3010±60BP)와 같이 몇몇을 제외하면 3000BP 이상인 것이 많지 않고 3000~2900BP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 전기 전반은 연대폭이 넓은 편인데 대략 2900~2800BP사이에 집중된다. 후반은 조동리 1호와 7호의 오차가 크기 때문에 채택하기 어렵고, 소수이지만 마리지 4·8호와 조동리 9호의 연대를 감안하면 2800~2650BP 정도로 판단된다.

V. 변천양상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각 단계의 구분은 다소 모호하지만 초기와 전기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돌대문계와 공렬문계의 형성과 소멸에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지의 구조에서 차이가 있으며 토기와 석기의 구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양 유역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초기와 전기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강유역은 돌대문계가 초기의 이른 단계부터 등장하지만 남한강유역은 전기 후반부터 등장하는데 양 유역 모두 전기 전반까지 돌대문계 요소가 남게 된다. 공렬문계는 남한강에서는 초기 전반의 늦은 시점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주거지의 구조는 초기 전반에는 북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중)대형급의 방형을 띠며 2열의 초석과 타원형의 점토상이나 토상의 위석식 노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반에 이르러 양 유역 모두 대형의 장방형으로 정형화하고, 전기에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다가 북한강유역은 중앙 1열이나 3열의 주공식 중심기둥과 수혈식 노만을 갖춘 공렬문계의 세장방형으로 정형화되고, 남한강유역은 중형급의 위석식노를 갖춘 방형과 장방형으로 변모한다.

토기는 초기에는 돌대문의 요소가 강하고 간헐적이지만 이중구연이나 구순각목문, 외반구연의 요소가 함께 확인되고 있는데 후반에는 이르면 동화리7, 대성리, 현암리 등 양 유역 모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가 확인되기도 한다. 이중구연의 요소

7) 동화리의 이중구연의 요소는 가락동유형의 이중구연 요소와는 계통이 다른 요소라고 판단한 바(김권중 2010) 있다.

는 계통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기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요소는 영서지역 재지문화에서는 독자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유입당시에 이미 혼재되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돌대문토기는



도20. 구순각목문이 시문된 신석기시대 말기 토기

후반에도 강하게 지속되고 양 유역에서 새로이 구순각목문이 확인되는데 공렬문과 함께 낮은 단계(전기)로 편년(박영구 2012)되었지만 초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연하리 13호를 비롯하여 추천리 14호, 아우라지 11호, 중부리II-2호 등에서 같이 이른 단계부터 등장한다고 판단된다. 용천 신암리와 청도 오진리, 밀양 금천리, 김해 수가리 등 신석기시대 말기 토기에서부터 확인되므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북한강유역에서 공렬문 보다는 이른 단계에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토기의 기형 변화는 초기 전반에는 심발형이 주류이지만 천발도 소수 있고 내만구연의 옹형⁸⁾인 것이 다수 보이다 후반에는 점차 사라져 전기에는 거의 심발형만 남게 된다. 초기 후반부터 시차를 두고 등장한 다양한 토기문화가 전기 전반을 기점으로 교류에 의해 복합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토기 가운데 대부토기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초기 후반에 등장하여 주로 내만구연의 토기에 굽이 넓고 낮은 대각(1식)이 부착되다가 이후 옹형의 기형에 좁고 낮은 대각(2식)이 부착된 토기가 함께 사용된다. 전기에도 2식의 대각이 사용되지만 이후 일부 유적을 중심으로 통형의 대각(4식)이 새로이 등장하기도 하며 점차 후반에는 긴 대각(3식)으로 교체된다.

석기는 비교적 변화가 뚜렷한 편인데 석검은 형태가 다양하지만 주로 이단병식으로 판단되는 것이 초기 전반부터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석촉은 1a식(무경식)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초기 후반부터 남한강유역에서는 역자식의 2a식이 등장하여 함께 사용되며, 이후 1b식(무경식)과 2b식(이단경식)이 전기 전반부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전기 후반부터 3식(일단경식)이 점차 등장하게 된다. 석부는 합인의 경우 일부 유물의 경우 횡단면이 방형에 가까운 것에서 점차 얇아지는 경향이 있고, 방추차는 초기에는 단면이 얇은 것(薄)에서 남한강유역은 전기 전반까지도 지속되지만 점차 두꺼운 것(厚)으로 변화된다. 석도는 초기에는 장방형과 제형이 사용되는데, 남한강유역에서는 전기 전반까지 사용되지만 양 유역 모두 주형으로 변화된다. 어망추는 양측에 홈을 낸 장방형(1a식)이 초기 전반부터 등장하고 후반에는 (타)원형

8) 이러한 내만구연의 옹형토기는 외삼포리유적이나 아우라지유적, 철정리II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기형 중에는 동최대경이 넓은 옹형의 형태를 띠는 토기들이 있는데, 돌대문이 시문되지 않은 것도 다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들은 동체 팽만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에서 중앙에 구멍을 뚫은 것(1b식)이 함께 사용되고, 중앙이 구멍이 뚫린 관상의 것(3식)이 전기전반부터 등장한다. 이 외에도 환상석기의 경우 초기 전반부터 일부 확인되며 남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데 전기 후반에는 사라진다.

VI.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강원 영서지역 청동기문화는 토기문화의 계통별로 각기 다른 등장,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등장하였으며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는 등장 당시 유입된 요소의 다양한 계통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후 상이한 전개과정을 거치게 된다. 돌대문토기 유입 이전의 문화가 뚜렷하지 않아 재지문화와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석기시대 말기 토기와 연결고리가 명확치 않아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이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조기와 전기의 구분과 각 기의 단계 구분은 여전히 모호한 감은 떨칠 수 없다. 금번 발표 내용도 기존의 연구 내용과 큰 틀에서 차이는 없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영서지역 청동기문화는 초기로부터 점진적인 변화를 거쳐 전기가 성립되는데 초기 전반에는 돌대문계를 비롯하여 간헐적이지만 이중구연계 요소를 비롯하여 구순각목문, 외반구연, 유상 돌기기 등 매우 다양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돌대문토기에 공반된 요소는 기원지의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특히 주거지의 구조와 토기의 기형 등으로 볼 때 압록강유역의 신암리II기나 공귀리·심귀리 I기 등과 관련되거나, 요동계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등 다양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이후 초기 후반과 전기 전반에 걸쳐 공렬문계 요소가 양 유역에 확산되어 초기부터 이어진 다양한 요소와 접촉되지만 점차 공렬문계 요소만 남게 되며, 유역별로 상이하게 정착하여 지역에 알맞게 적응하는 전개양상을 보이는데,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중기까지도 이어진다.

참고문헌

- 고민정, 2009, 「남강유역 각목돌대문토기문화와 북한지역과의 병행관계-무문토기시대 조·전기를 중심으로」, 『동북아 관점에서 본 북한의 청동기시대』, 제2회 청동기학회 학사분과 발표회, 한국청동기학회.
- 金炳燮, 2009, 「남한지역 조·전기 무문토기 편년 및 북한지역과의 병행관계」, 『韓國青銅器學報』4, 韓國青銅器學會.
- 金權中, 2010, 「청동기시대 중부지방의 시·공간적 정체성」, 『중부지방 고고학의 시·공간적 정체성(Ⅰ)』2010년 중부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중부고고학회.
- _____, 2012, 「江原嶺西地域における青銅器時代集落の編年と變遷」, 『日韓集落の研究』, 日韓集落研究會.
- 金壯錫, 2008, 「무문토기시대 초기설정론 재고」, 『한국고고학보』69, 한국고고학회.
- 金材胤, 2004, 「韓半島 刻目突帶文土器의 編年과 系譜」, 『韓國上古學報』第46號.
- 朴榮九, 2012, 「中部地域 突帶文土器文化의 展開樣相-江原嶺西地域을 中心으로」, 『韓國上古史學報』제75호.
- 박성희, 2009, 「청동기시대 초기론(早期論)에 대한 비판적 접근-돌대문토기를 중심으로」, 『江原考古學報』第12·13合號, 江原考古學會.
- 裴眞晟, 2007,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_____, 2011, 「墳墓 築造 社會의 開始」, 『한국고고학보』80, 한국고고학회.
- 安在皓, 2000, 「韓國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43, 韓國考古學會.
- 崔鍾模, 2010, 「강원도 청동기문화의 전개에 있어서 초기문제의 제기」『고고학 제9권』제1호, 중부고고학회.
- 千羨幸,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韓國考古學報』第57輯, 韓國考古學會.